



건설업체 건축사업까지 진출(설계겸업) 시도, 말살되는 건축업계

- 건설업계 국토교통부에 건축설계업허용 등 요구

본지 서재형 편집인 퇴임

- 4년간 편집인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봄은 오는가?

건축문화에도 봄은 오는가?

시론, 취임사 _ 02

"지역 건축인의 역할" _ 남해경 교수
 신임 편집인 취임사 _ 정명환 건축사

하이슈 _ 03

건설업체 건축사업까지 진출(설계겸업) 시도, 말살되는 건축업계
 영화 '해어화'를 통해 그려지는 광주의 모습은
 본지 서재형 편집인 퇴임

설계경기 _ 04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작품소개 _ 05

제3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입상작

사람&issue _ 06

건축주에게 본인의 위치를 확인시켜드리고, 건축주의 생각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
 _ 박동영 건축사와의 만남

NEWS _ 07 ~ 10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2016 ARCASIA 학생 건축설계 경연대회 개최
 대한민국의 건축박람회, 한옥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며 종료
 광주폴리Ⅱ, '폴리와 도시의 일상성' 워크숍 개최
 제5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에 박유복 (주)인스나인 대표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공고돼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부회장 2인 선임해
 전남건축사회, 완도군과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협약 체결
 전북 군산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참여 건축사 모집
 건축사회 관련 4월·5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지역 건축인의 역할”



남해경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대한건축학회연합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namhk@jbnu.ac.kr

우리 건축인들이, 특히 지역 건축인들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행동해서 후배 건축인들이 우리보다는 더욱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으면...

요즘 선거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후보자들의 화두는 단연코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일 것이다. 실제로 공약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관심사인 것 같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화두가 아니라 상시어가 되어 버렸다. 특히 우리 같은 지방의 건축계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아마도 그런 말들은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이 지나간 다음부터 계속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요즘 경제가 좋다. 특히 건축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올 것인가? 아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날은 앞으로 쉽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건축경기가 어렵다고 말하기 이전에 건축경기를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필자는 최고의 성과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인들은 자기의 업무를 소리 없이 빼앗겨 왔다.

그동안 건축인들은 이 사회에서 묵묵하고도 꾸준히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다. 그런 모습이 만만해 보여선지, 아니면 건축인들이 순하거나 안전한 것이라는 몰라도 자기의 업무를 소리 없이 빼앗겨 왔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지만, 빼앗겨 버렸거나 침범당하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내용으로 볼 때 건축분야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에겐 빼앗겨 버렸다. 인테리어는 건축의 일부이기 때문에 건축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순수미술이나 디자인분야의 사람들에게 점령되어가고 있다. 또한 건축기획업무(programming)인 CM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처럼 인식되어 버렸다. 심지어 기획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가 건축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한옥 붐을 타고 건축인이 아닌 임학 전공자들이 한옥을 짓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옥의 주재료인 나무를 취급해야한다는 명목이다. 이로 인하여 이상아릇한 양식의 한옥이 나타나 한옥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공무원사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토목직은 인원수도 많고 승진도 빠르며 예산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건축직은 인원수도 적고 승진도 어려우며 예산도 적다고 한다. 선의의 경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볼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의 양에 따라서 예산과 인원이 결정되겠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우리 건축계의 하소연이다.

그렇다면 건축을 교육하는 대학교는 예외인가? 아니다. 건축교육계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학생들이 야심찬 마음으로 건축과에 입학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건축에 대한 흥미는 떨어지는 것 같다. 특히 설계분야인 건축학은 조금 더 심한 편이다. 취업에 대한 기대감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자기 시간도 부족한 열악한 근무조건은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 소규모 건설회사나 건축사사무소는 천발일 수밖에 없다. 취업할 사람을 구해보지만 지원자가 없다.

졸업생들이 모두 취업한 것도 아니고, 놓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지원자는 없다. 대부분 대기업, 공무원, 공사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라고 숨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무원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왜 건축과에 들어왔느냐고 교수님께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말도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옛이야기처럼 돼버린 것이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이 없다고 왜 하소연만 하는 것일까?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책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거나 놓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고 방법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것만 보았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고 변화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거기에 적응하여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영역만 잡고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변화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건축계는 많이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전에 중동진출 이후, 정치가의 정책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수백만호 아파트를 일순간에 건축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건축계는 호황이었다. 그리고 최근엔 다가구주택이 전국 곳곳에 건축되었다.

그런 덕에 건축계는 속된말로 재미를 봐 왔다. 하지만 그 결과 오늘날에는 주택공급량 과다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건축경기도 동반하여 침체되고 말았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건축수요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건축공급의 완급을 조절하지 못한 정치가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지만, 경기가 좋을 때 흐린 날을 걱정하고 대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서 보았듯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축인도 변화해 함은 자명하다. 앞으로 건축분야에서는 예전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건축의 소프트웨어적인 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생각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분야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건축교육에 있어서도 고전적인 건축과 더불어 IT를 접목한 첨단 건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찾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서 후손들에게 건축인의 위상을 유지시켜 주어야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필자에게 주어진 '지역건축인들을 위한 개선의 기회'

금번에 필자에게 국가건축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와 건축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필자가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다. 내가 지방에서 태어나고 지방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지역 건축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공언도 했었다. 그래서 지역건축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영역의 조정, 지역 건축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 건축과의 생존문제, 구조조정문제, 건축학인증문제, 건축공학인증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학회도 이제는 논문발표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지방대학에서 건축학과를 포기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폐과되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도 늘어나고 있다. 이 학과를 살리는 것은 대학본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한 대학에 100개의 학과가 있다면 대학본부입장에서 볼 때 건축과는 100개 학과 중의 하나일 따름이다. 따라서 학과를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학과 구성원인 것이다. 학과의 특성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하면서 어려울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대학의 생존문제, 발전방향 같은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건축인들이, 특히 지역 건축인들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행동해서 후배 건축인들이 우리보다는 더욱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조그만 바람이다.

신임 편집인 취임사



정명환 건축사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 2009년 11월~현재
"건축문화사랑" 부편집인,
- 2015. 6월 ~ 2016. 4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이사,
- 2013. 3월 ~ 2015. 3월

우리 '건축문화사랑'은 2009년 11월 10일 창간되었습니다. 이제 여섯돌을 지나 77호를 발행하게 된 아직은 유년기의 언론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호남의 건축, 호남의 도시, 호남의 자연을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 사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데 부단히 노력한 신문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009년 늦은 가을 여러 건축인의 염원과 초대 공동발행인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광주, 전남, 전북건축사회 회장님의 결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건축문화사랑'은 초대 박홍근 편집인과 여러 편집위원들이 모여 "건축문화사랑"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논의하고 누구를 위한 신문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해야 할지 고민할 때 우리 모두는 설레임과 부담감을 간직한 채 가슴으로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 초대 발행인은 발간사에서 '건축문화사랑'의 발간 목적을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인들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경계를 허무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며, 건축인과 시민들의 공유를 통한 소통, 소통을 통한 공감, 공감을 통한 감동, 감동을 통한 공존의 형성'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이제 제 4대 편집인의 임무를 맡으면서 창간호 발간의 초심으로 '건축문화사랑'의 역할이 어떠한지 되새기게 됩니다.

첫째, 시민들과 건축도시에 종사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와 우리 건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어난 사실들의 문제를 규명하여 논평하여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정보와 무관심에서 오는 부정적 환경을 계몽하고 교육하여야 합니다.

넷째, 건축과 도시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며 스스로 소통하고 존중할 때 아름다운 공존이 문화로 승화 될 수 있도록 매체로서 양심과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 1000여명의 건축사회 회원과 건축인들이 만들어가는 신문!

우리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신문!

호남 530여만명의 문화 시민들이 함께하는 신문!

너와 나 우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가 소통하며 공존에 앞장서는 신문! 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문화사랑"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함께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일 때 내일에 호남의 건축문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도..... 끝으로 어제 그들의 노력이 오늘이 되듯이 묵묵히 4년을 뛰어다니며 노력해 주신 서재형 2,3대 편집인과 편집위원들 그리고 전담기자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우리는 또 내일을 위해 뛰어납니다.

건축계 핫 이슈!

① 건설업체 건축사업까지 진출(설계겸업) 시도, 말살되는 건축업계

- 건설업계 국토교통부에 건축설계업허용 등 요구



지난 3월 말경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규제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문건이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 제출한 문건으로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 시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을 허용하고, 법인 대표자의 건축사 자격 보유 의무를 폐지시키며, 건축사사무소명 칭사용 규제를 법에서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를 들어 현황 및 문제점을 거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계에서 주장한 현황 및 문제점>

- ① 건축사법상 건축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인 경우에도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함
- ② 건축설계업 진입 규제는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건설업계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임
 - ☞ 이 두가지를 그 동안의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규제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에 반한다고 주장
- ③ 건축사법에서 대표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설계업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 ☞ 이를 최근 정부에서 발의(2014.10.15)한 건축사법 개정안에서도 건축법인 설립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면서 같은 수준의 예외만을 규정한다고 주장 (※해당 규정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채용한 법인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과 국가 및 지자체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 발주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
- ④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
 - ☞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건축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 ⑤ 건설업계의 설계업 진입 차단은 설계·시공의 분리에 따른 시공상 비효율을 야기하고 건축설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 공종별 설계서 내용에 대한 상호 유기적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불일치 등 잦은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며, 건설업계의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노하우 등의 피드백 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양질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
- ⑥ 설계·시공 겸업 제한은 세계적으로 설계와 시공의 통합적 관리 추세 아래에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장애가 됨
 - ☞ 공사관리 조정능력, 통합실적 등 최근 해외공사 트렌드에 역행하여 해외수주에 차질을 초래, 해외수주 확대 시책에 반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중기)에서는 지난 4월 4일 8층 임원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즉각적으로 건축사회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한다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메일 및 문자 발송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와 각 정당에 반대의견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논리적 대응방안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검토를 고려중이며, 향후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건축가협회와 새건설 등 건축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 수립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대국민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언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황에 대해 일부 건축사들은 "건설업계의 설계업 허용,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 사용 폐지 등 모두 건축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내용들로 도대체 어디까지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뺏기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분열되어 있는 건설업계가 하나로 뭉쳐 이 시안에 대해 대응할 방안을 즉각적으로 수립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영화 '해어화'를 통해 그려지는 광주의 모습은

- 양림동의 최승호 가옥과 오웬기념관, 조선대, 충장로 배경



오는 4월 13일 개봉하는 영화 '해어화'(유연석, 한효주, 천우희 주연, 박흥식 감독 연출)에 광주의 모습이 담겨져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과 공간인 양림동의 최승호 가옥과 오웬기념관, 조선대, 충장로 일대가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1943년을 배경으로 노래를 통한 남녀 간의 우정과 사랑, 질투와 갈등을 그리며 마지막 기생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제목 '해어화(解語花)'는 말을 이해하는 꽃이란 뜻으로, 미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한 영화 관계자는 "광주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상영되면 광주 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개봉 이후 많은 관람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③ 본지 서재형 편집인 퇴임

- 4년간 편집인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건축문화사랑 신문 서재형 편집인(광주/건축사사무소 선)이 임기만료에 따라 이번 4월 10일자로 퇴임했다. 서재형 편집인은 2009년 11월 창간호부터 편집위원이자 건축사기자로 활동했고, 지난 2012년 4월 2대 편집인으로 선임된 이후 3대까지 연임하며 본지의 기틀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는 4년의 임기동안 신문의 안정적인 발행과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전문 매체로서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층 확대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재형 편집인은 임기만료 후에도 본지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MIDAS 지인추천 이벤트

고객님의 지인에게 마이다스아이티의 제품을 소개시켜 주세요. 지인이 새로운 마이다스 고객이 되어 Link가 만들어지면, 기존고객님께서 2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며, 신규고객님께는 특별 프로모션 혜택과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3월 14일(화) - 4월 29일(금)

신청방법
www.midasArchi.com/link 또는 담당자 문의

추천하고

내가 추천한 지인이 구매하면

20만원 상품권 증정

추천받고

첫 구매 시

특별 프로모션 (파격추가할인)

MIDAS Space Design Solution 공간설계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midas eGen DS × midas Drawing DS

* 이벤트 혜택은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전액은 마이다스아이티가 부담합니다.

전주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본 설계공모는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
 우수작 : (주)올그림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건축사
 - 협의하여 미게재
 가 작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이현조 건축사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86번지
 사업규모 : 4,500㎡(1층 피로티 2층구조)
 용 도 : 운동시설, 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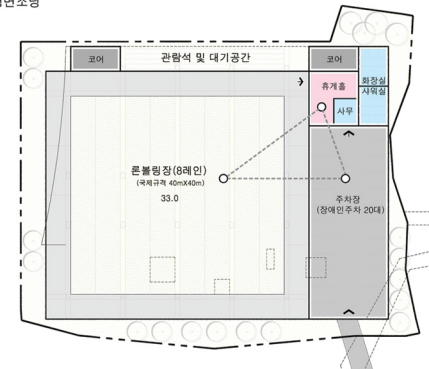
주요시설 : 기존운동장, 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보치아, 골볼, 탁구, 다목적홀, 지적장애체육공간, 사무실, 편의시설, 체력측정실, 의무실, 샤워실, 락커룸, 헬스장, 에어로빅,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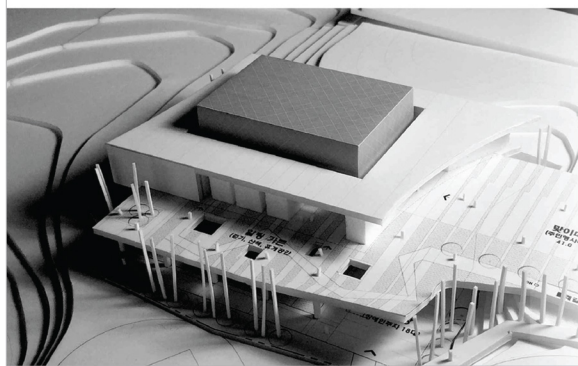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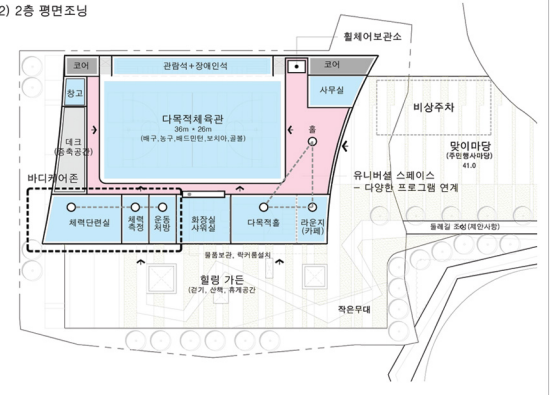
이길한 건축사 / (주)길 건축사사무소



1) 1층 평면조닝



2) 2층 평면조닝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86번지
 대지면적 : 4,754.00㎡
 건축면적 : 2,295.49㎡
 연 면 적 : 2,141.98㎡
 건 폐 율 : 48.00%

용 적 륜 : 45.00%
 구 조 : 지상 2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쉬트, 접합강판 거열접기, 로이복층유리, 고밀도목재패널
 주 차 : 지상 14대 (장애인주차 7대 포함)

가작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ing + Gym = I.N.Gym

[올림픽, 동작] [체육관]

[장애인들의 도전과 열정이 멈추지 않는 체육센터]

1. 계획대지
2. 남향배치
3. 기동배치
4. 주변과의 연결성 확보

1층 평면계획

2층 평면계획

제3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입상작

건축문화의 창달과 국토환경 및 건축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산시의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한.

금상 : "군산 한일교회" 제이에스반석 건축사사무소 손관호 건축사
 + 예담 건축사사무소 서일석 건축사
 은상 : "도암하우스" 아이든 건축사사무소 한성호 건축사
 동상 : "군산 감리교회" 상상 건축사사무소 노관식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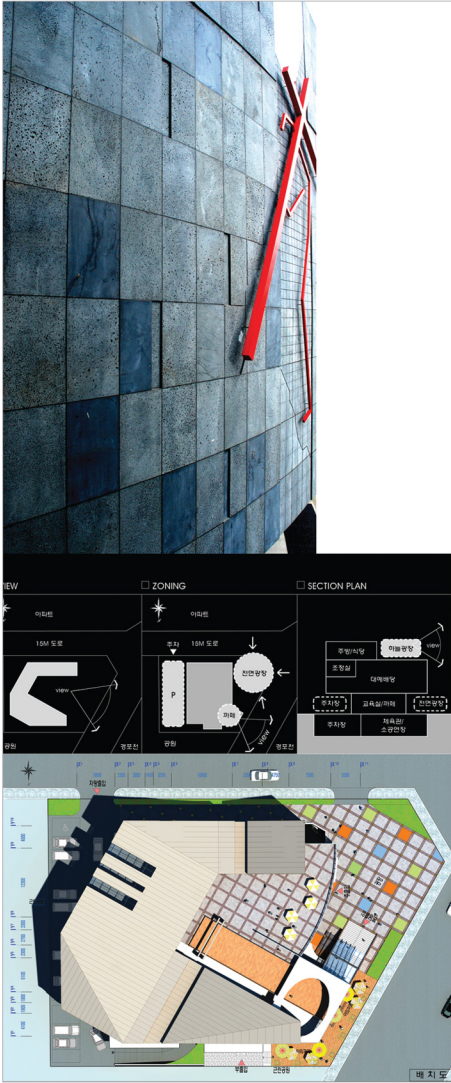
금상

군산 한일교회 _ 손관호 건축사 / 제이에스반석 건축사사무소
 + 서일석 건축사 / 예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24일원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2,966.4㎡

건축면적 : 1,693.23㎡
 연 면 적 : 5,494.99㎡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3,574.14㎡

용 도 : 종교시설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주차대수 : 60대(장애이용2대, 경차6대포함)



위 치 :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108-55번지
 지역/지구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대지면적 : 1,119.0㎡
 건축면적 : 182.5㎡

연 면 적 : 235.875㎡
 건 폐 율 : 16.31%
 용 적 륜 : 21.08%
 주 용 도 : 단독주택

최고높이 : 7.8M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차 : 2대

은상

도암하우스 _ 한성호 건축사 / 아이든 건축사사무소



건축주에게 본인의 위치를 확인시켜드리고, 건축주의 생각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 박동영 건축사와의 만남

전라남도 목포시청 맞은 편에 위치한 박동영 건축사(이하 박 건축사) 사무소 게시판을 보면 재미있는 글귀가 하나 붙어 있다. '건축주가 건축사를 찾지 아니하는 일곱가지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 첫째는 '건축사를 모르니까', 둘째는 '무보수 가설계를 친절하게도 가져다 주니까', 셋째는 '건설업자, 공인중개사가 대신 받아주니까', 넷째는 '전화 한 통화면 허가여부를 판단해주니까', 다섯째는 '계약의 공사비도 모르니까', 여섯째는 '자재의 성능, 가격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일곱째는 '말을 어렵게 하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일곱가지 글귀를 박 건축사는 매일 마음 깊이 되뇌이며 건축주들을 대하고,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꼼꼼함이 많은 건축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박 건축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광주에 있을 당시 조선대학교 병설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일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유준호)를 입사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건축설계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1998년 12월 수많은 노력 끝에 건축사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에 천년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20년 넘게 건축설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주택설계를 의뢰하러 오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짓고자 하는 주택의 크기를 머릿속에 담고 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주는 본인이 짓고 싶은 집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축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 욕실, 현관 주방의 기본 크기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려보는 연습을 시켜드려 봅니다. 그러한 건축주들은 집을 짓고 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주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로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시켜드리고, 건축주의 생각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제가 설계한 집은 아니더라도, 새집이 아니고 오래된 집이라도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건축사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인간이 만족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가끔 만나는 건축주를 볼때나 본인이 자들집을 직접 설계하면서 물어 오는 건축주 분이 있을 때에는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 건축물을 지어 놓고도, 건축주 본인의 의지대로 해놓고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볼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로 1988년 첫 건축사사무소 생활을 했던 당시의 유일 건축사사무소 유준호 건축사님을 뽑고 싶습니다. 그 당시 금남로5가 사거리 유명약국의 바로 옆에 은혜장이라고 기억되는데 여관건물 전면 3층에 있었습니다. 처음 실습을 간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건축사 시험보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몸 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냥가지겠지만 건축사 시험을 치를 때에는 가장 힘들고 고단했던 기억일 것입니다. 그때 다시 받아주시고 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함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건축사사무소 시작해서 얼마되지 않았을 때로 기억됩니다. 목포 지역은 2층 건물도 많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은 토지들이 매립으로 되어진 곳이지요. 4층 건물로 기억되는데 흙

을 포크레인으로 떠보았을 때 기계가 힘들게 떠 지길래 매립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말뚝시공 표기를 누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착공하고서 건축주가 거칠게 항의하여 주변에 지어진 건물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말뚝을 모두들 시공 했더군요. 사실 목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던 거지요. 그로 인해 건축주가 공사비로 시비를 걸어 오더군요. 당시에 건축법 정도만 알고 있었던 터라 난감하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을 찾아다녀도 이런 경우는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그것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인테리어는 완공 후에 변경해도 되지만 구조부분은 처음 지어질 때에 모든 것이 결정되잖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겪지는 않지만 무엇이든 한번의 경험으로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광주지방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활동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건축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때에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건축설계를 시공자에게 의뢰하고서 공사계약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시공자에게 설계를 의뢰하여도 상관이야 없겠지만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건축주의 참여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사비, 인테리어, 하자부분 중에는 상당수가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다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들은 항상 저를 찾는 건축주분과 시공자에게 말씀은 드리지만 잘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당장 앞에 있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다고 건축사로서의 직무를 등한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에 이익에 눈이 멀어 내일의 업무를 등한시 한다면 건축사의 비전이나 위상에 치명적일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건축사 협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협회나 지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축사님들도 결국에는 건축사협회가 우리들이 있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 해주시고 모든 건축사 분들이 협회나 지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협회 자체에서도 양방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건축사분들중에는 건축 업무 외에도 탁월한 능력이나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능력이나 기능을 잘 활용하면 회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가상의 공간에 ID를 개설한다든가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광장을 만들어 활용 할까 합니다.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남 목포 / (유)천년 건축사사무소 박동영 건축사



▲ 지난 4월 6일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박 건축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 박동영 건축사 작품 >



나주 펠리시티



옥암동 근린생활시설



율도치안센터



상동 도시형생활주택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 지난 3월 18일 광주대학교 백인관에서... 신임 회장으로 호남대 김홍식 교수 선임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3월 18일 광주대학교 백인관 2층 컨퍼런스 룸에서 2016년도 학술발표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연합석 지회장(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축사, 감사패 증정식, 신임교수 소개 및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용춘 교수를 비롯한 2인의 학술발표와 함께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회장으로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김홍식 교수를 선임했으며 본지에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보내왔다.

“건축문화사랑” 취임인사 글

존경하는 광주·전남 건축인 여러분!
따스한 기운이 만물을 생동케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건축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전남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사)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 회원 등을 비롯한 광주·전남 모든 건축인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안으로는 연합석 지회장님을 비롯한 전임회장님들께서 초석을 다져놓으신 발판을 디딤돌삼아 더욱더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아울러, 밖으로는 광주·전남 건축인 여러분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광주·전남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 지회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방향을 갖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 첫째, 학술활동의 공동협력 및 공동참여
- 둘째, 건축인 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참여
- 셋째, 건축인의 권익 및 위상강화와 관련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 협력 및 지원

이 세 개의 큰 그릇 속에 내용물을 담는 일은 광주·전남건축인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합니다. 아프리카의 명언 중에 “가까운 길을 떠나려면 혼자 떠나고 먼 길을 떠나려면 함께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지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광주·전남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전남 건축계와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가분들을 포함한 모든 건설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 신임지회장 김홍식 배상

사랑에서 _ 열일곱

뒷모습

왠지 모르게 뒷모습은 초라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건축문화사랑의 편집장도 그 이치를 거역할 수 없음을 당연하다. 하여 편집장의 직책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고하고자 한다. 뒷모습이 어떻게 비쳐질지는 독자와 후임 편집장의 몫으로 남겨두고...

벌써 6년여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건축문화사랑의 창간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었다. 어쭙잡지만 기자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마치 글쟁이라도 된 것처럼 마감이 쫓겨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편집인이라는 중책까지 맡아 무려 4년 동안이나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왔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보람과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었던 세월이었던 것 같다. 진작 물러났어야 했는데 여태껏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지난 6년, 그 중에서도 편집장을 맡았던 4년 동안은 솔직히 너무 힘든 여정이었다. 생업을 저버릴 수 없는 처지였기에 열심히 뛰어나달 수도 없었고,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경험도 없었다. 반면에 압박과 부담은 폭풍처럼 밀려왔다. 일정관리와 정치적인 조율, 원고 청탁과 취재, 교정과 편집, 독자들의 반응과 평가 등 신문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감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동료 편집위원들의 분담과 배려,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인들의 지원과 협조, 광속국 전담기자의 노력 덕분이었다. 특히,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존재가치와 편집위원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격려와 질책이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막상 물러나려니 시원스럽지 않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훌기분하기도 하고, 좀 더 잘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했지만,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아쉽다. 그리고 명색이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알릴지 못해 보고 물러나는 것도 못내 아쉽다. 또한 독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많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당분간은 ‘사랑에서’라는 코너를 통해 못 다한 역할도 다소나마 보충하면서, 독자 여러분과도 꾸준히 소통할 기회가 남아 있어 아쉬움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지나간 외도를 멈추고 본연의 길로 돌아갈 때가 왔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애정은 결코 식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독자와 쌓았던 인연과 추억도 결코 잊혀 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것처럼 강렬한 행적을 경험케 해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며 느끼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런 날들이 쉬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의 사랑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편집인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학생기고>

YOUNG CREATIVE KOREA 2016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성섭)



2016년 3월25일(금)부터 3월29일(화)까지 서울 아트센터에서 5일간 YOUNG CREATIVE KOREA 2016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부부 졸업설계 작품 전시와 패션영상 등 예술 부분으로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학생부부 졸업설계 작품 전시회에서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2016년 2월 졸업생인 안성섭 학생 작품인 'Cultural Art Space:AGIT' 전시되었다.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구도심 코리아극장, 문화, 예술의 공간을 교체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문화와 예술을 중세시대에서 비추어 본다면 예술가들은 예술을 행하기위한 장소가 필요했으며 그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한 시대의 문화를 주도 했다. 하지만 현 시대는 다양한 IT 기술의 발달로 공동성이 해체가 되었으며 사람간의 소통 또한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 예로 중앙동에 위치한 코리아극장은 과거 중앙동의 활기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극장을 통해 문화를 즐기며 소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심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번 작품을 통해 문화의 중심에 있는 예술가들의 문화 소통 공간을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 문화를 즐기고 그로 인해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작용되길 기대하며 작품을 시작했다.

코리아극장은 영상 문화를 품어주던 건물답게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큰 편에 속해있으며 눈에 잘 들어오는 붉은 색 재질들로 마감이 되어있다. 주변에는 익산역과 중앙시장, 창인시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통과 상권이 확보되어 있는 익산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모델링 계획은 총 4개의 중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전과 변화, 두 번째는 다양한 볼륨, 세 번째는 사선 벽, 네 번째는 상징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존 건물인 코리아극장의 외적인 형태와 재질을 살리고 내부 인테리어로 진행이 된다. 두 번째에서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층고와 객석으로 인한 레벨차이를 재해석하여 다양한 볼륨을 가진 가변성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있다. 네 번째에서는 중세시대 해체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벽을 거부하고 사선 벽을 사용하여 독창성있는 공간을 해석한다. 마지막단계는 건축물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건축물 중심부에 아트리움을 계획하고 모든 동선이 교차되어서 모두 만나는 공간을 구성했다.

위와 같은 주제와 공간의 생각으로 'Cultural Art Space:AGIT'란 작품이 나오게 됐고 더 나아가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회도 잡을 수 있었다.

안성섭 학생의 소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분야부터 다양한 예술분야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지만 지방대 작품은 많이 있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개성도 있고 완성도도 높아야 전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대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시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섭 학생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대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전시 기회가 보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학생 _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 미술작품 _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2016 ARCASIA 학생 건축설계 경연대회 개최

- 오는 5월 20일까지 작품제출마감, 상금 및 트로피 수상혜택도



제17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의 학생 쟁모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이라는 주제 아래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건축설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출자격은 건축학과 재학생 또는 ARCASIA 각 회원국의 국립건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이며, 개인 또는 팀 제출이 가능하다.

오는 5월 20일까지 작품제출 마감이며 제출서류는 가로 형태의 A1사이즈 한 개 배치도 파일과 제안서 제목과 종합 제안서를 설명하는 doc 형태의 최대 500자 설계 설명서, 정식으로 완성되고 확인된 pdf 형태의 참가신청서이다.

수상혜택은 금, 은, 동상 총 5명이고 약 홍콩달러 1만불 상금이 걸려 있으며, 모든 최종 후보 출품작은 2016년 하반기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공지사항 177963번을 참고하면 된다.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며 종료

- 전라남도건축사회에서 특별강연과 한옥건축포럼 개최로 큰 호응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앞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한옥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한옥의 진화방안을 모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종료됐다.

메인홀인 한옥건축주제관에서 '한옥의 기본' '영암한옥이야기' '한옥정보관' 등 11개 테마관으로 한옥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 한옥의 우수성과 주거문화 미래가치와 부합한 전시물로 관람객들이 한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한옥자재관에서는 주제관 앞 회랑 내부에 한옥의 주요 구성요소인 벽체, 창호, 기와 등과 영구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목재 방부도로, 공구, 타일 보수재 관련 업체로 구성된 한옥을 짓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들과 한옥건축시공업체, 자재업체의 비즈니스 장이 되었다.

이와 함께 명사 초청토론과 한옥건축 진로체험관도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목)에서 주관하는 좋은 집짓기 특별강연과 한옥건축포럼도 진행되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한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박람회 관계자는 "건축관계 기관들의 많은 협조로 한옥건축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방문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추후 개최될 박람회에서도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한옥박람회는 전라남도 영암군이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2010년 10월부터 공동주최하며 시작됐다.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 서울국제불교박람회(EXPO) 전시

-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 남해경 교수)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EXPO)에 참여하여 그동안 갖고 있던 한옥 작품을 전시했다.

이 전시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두 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 참가하였는데 한옥분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전시회를 가졌으며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많은 면적을 할당받아 전북대학교 한옥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전북대학교에서 이루어진 각종 교육결과물로서 건축사들이 참여한 한옥설계반의 한옥설계작품, 고창캠퍼스에서 이루어진 한옥기능인력양성반의 각종 한옥모형을 비롯하여 대학생반의 작품, 청소년캠퍼스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는 올해 2월에 서울한옥박람회에 초청되어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부산 벡스코, 일산 킨텍스 등에서 초청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자체적으로도 3회 이상의 전시회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 전시회를 참관한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전북대학교 한옥작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많은 의견을 주었다고 한다. 아울러 참관한 관객들로부터 한옥교육이나 한옥건축에 관하여 많은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특강 진행

-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현황과 변화하는 추세 등 설명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지난 4월 5일 교내 강의실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 '마이더스아이티'의 강사를 초빙하여 4, 5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현황과 변화하는 추세 등을 설명하고, '마이더스아이티'라는 회사와 이 회사가 취업 특강을 하는 이유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진행됐다. 이제 막 4학년이 된 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기회가 되었으며, 5학년 학생들에게는 당장 다가올 취업에 대해 더욱 세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마이더스아이티'는 건설, 토목, 건축 분야를 넘어 의료 분야에 까지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기사 실시시험 특강 진행해

- 지난 3월 15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시, 30여명 학생 청강



전북대학교에서는 지난 3월 15일, 22일, 26일 총 3회의 건축기사 실기시험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2월에 22일부터 5일간 진행했던 건축기사 필기 특강 이후의 2번째 특강인 이번 특강에는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기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 실기특강은 현 한솔아카데미의 안광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다.

광주폴리Ⅲ, '폴리와 도시의 일상성' 워크숍 개최

- 지난 4월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거시기홀에서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4월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거시기홀에서 광주폴리Ⅲ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폴리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건축관계 인사 등 수많은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폴리Ⅲ의 진행경과를 살펴 봤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광주비엔날레와 네덜란드창조산업기금과의 MOU 체결식과 지난 해 12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개최된 '뽀뽀폴리'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또한 진행됐다. 한편 광주폴리Ⅲ은 '도시의 일상성'을 주제로 5개 정도의 폴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5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에 박유복 (주)인스나인 대표

- 지난 4월 1일 취임식 갖고 3년 임기 돌입, 3년간 14개 전략과제사업도 발표



지난 4월 1일 박유복 제5대 (재)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이 디자인센터 2층 전시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3년 임기에 들어갔다.

박유복 원장(이하 박 원장)은 취임식에서 "디자인센터에 대한 지역의 수요점과 역할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개원 10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산업에 실질적 생산성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실천과제 추진과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코라덕트디자인, 에코디자인 등 3가지 추진방향도 밝혔으며 향후 3년간 디자인분야 세부전문가 양성, 스타기업 육성, 디자인명품 100선, 국내·외 교류 강화 등 14개 전략과제사업도 발표했다.

박 원장은 목포대학교(미술학사)와 일본 동경대학원(미술석사)을 졸업한 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부장, 제3회 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주)인스나인 대표 역임 등 디자인산업계에서 25년 이상을 활동했다.

2016 꿈다락 토요일 문화 광주학교 개강 및 참가 접수

- 오는 4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7회 진행, 17일까지 무료 참가 접수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광주지역 교육이 오는 4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7회로 광주예총에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회장 남승진)가 주관 및 후원하며, 광주지역 어린이(11~13세)와 청소년(14~16세, 17~19세)을 대상으로 하여 '살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는 4월 17일까지 각 대상별 20여명으로 제한하여 해당주소(<http://me2.do/5q6VAg5e>)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최종 참가자 발표는 4월 19일 광주토요문화학교 카페 (<http://cafe.naver.com/toyoarchi>)에 공지와 함께 개별통보 된다.

광주건축가회 남승진 회장은 "이번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는 내실 있는 강의와 답사 등의 체험을 통해 건축과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주 5일제 수업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이 없는 토요일, 학교 밖에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담당자 이상희 간사(010-9399-4351)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공고회

- 준공부문 6월 3일까지, 계획부문 5월 27일까지 신청접수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자 마련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올해 작품공모가 시작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써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건축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작품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불가)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사진접 심사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 "Social platform" -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건축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 작품접수 |

- 준공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6. 3.21(월) ~ 6.3(금) 09:00~18:00 ☎ k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6. 6. 8(수) ~ 6. 9(목) 09:00~18:00 시간업무
 -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계획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6. 5. 24(화) ~ 5. 27(금) ☎ kaa.kira.or.kr
 - 1차 작품접수 : 2016. 6. 1(화) ~ 6. 2(수) 09:00 ~ 18:00 시간업무
 -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2차 작품접수 : 2016. 7. 12(화) 09:00~18:00 방문접수
 -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 참고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진로직업상담 교육기부 나서
- 참여 희망하는 학교 대상으로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오는 4월 29일까지 광주지역 70여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상담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월 중순경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4월 10일 현재 10여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공문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에서는 전화(062-521-0025~6)로 문의 후 교육신청서를 전달받아 작성하여 팩스(062-521-0025)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정명철 회장은 "우리 건축사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 선택시 도움이 되고자 감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건축사 진로직업상담 교육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 교육기부사업은 회장 임기기간내에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교육기부를 진행할 감사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건축사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부회장 2인 선임해

- 지난 3월 21일, 김동선 건축사(주)원일 건축)와 정상채 건축사(초석 건축) 선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3월 21일 동구 금수장 아리랑하우스에서 제3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1년의 부회장 2인을 선임했다. 제1부회장으로 선임된 김동선 건축사(주)원일 건축사(사무소)는 1954년 생으로 1989년 입회했고, 제2부회장으로 선임된 정상채 건축사(초석 건축사(사무소))는 1958년 생으로 1999년 입회했으며 두 부회장 모두 광주건축사회 이사, 감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동선 부회장은 앞으로 광주건축사회의 건축법제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인사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건축물안전관리위원회를 소관하며 정상채 부회장은 여성분과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교육정보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를 담당하게 됐다.

광주건축사회,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신임 편집인 선임해

- 광주지역 부편집인 정명환 건축사(디에이 건축)를 임기 1년 6개월 편집인으로...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3월 21일 동구 금수장 아리랑하우스에서 제3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1년 6개월의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신임 편집인을 선임했다. 신임 편집인은 광주지역 부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환 건축사(디에이 건축사(사무소))로 광주대학교(학사)와 동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했으며 2007년 자격 취득 후 입회했다. 본지 발행 초창기부터 근 7년간 편집위원과 건축사기자, 부편집인으로 활동하며 신문 편집 분야에는 정평이 나갔고, 대외적으로도 대학 감사활동과 NGO 「나무심는건축인」 운영위원,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운영위원, 광주건축사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역임 및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편집인의 임기는 오는 4월 11일부터 시작되며 2017년 10월 10일까지이다.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임시총회 개최

- 오는 4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정명철)은 오는 4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2016년도 제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정될 예정인 부의안건으로는 임원 개선의 건으로 이사 4인에 대한 선출을 심의한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선거공고를 통해 임원 선거공고를 진행했다.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이 참석하여야만 성원이 된다고 밝히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판 개시

- 감정이 최고 80%로 아파트와 일반 부동산 최저 3%와 3.3%로 대출 특판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음과 같이 특판 개시한다고 밝히며 많은 건축사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신협 특판개시
부동산 담보대출 든든한 금융파트너 광주건축사신협이 되겠습니다.
감정이 최고 **80%**(사업자금 80%, 개인 70%)

아파트	구분	일반부동산
최저 3.00%	금리(6개월변동)	최저 3.30%
면제	근저당권설정비	면제
면제	수입인지	면제
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평면도

☎ 특수물건, 제한물건, 내대지 제외 ※ 2016년 4월 30일까지 한정판매
상담 김정석 부장, 김은숙 과장, 김효중 주임 ☎ 062 527 8890~1

전남건축사회, 완도군과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지난 3월 16일, 완도군청 군수실에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목)는 지난 3월 16일 전남 완도군청 군수실에서 완도군과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전라남도건축사회는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를 위해 지역건축사회는 물론 각종 대외 행사시 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박람회 기간 중 건축 관련 워크숍 등을 완도군에서 개최기로 했으며, 관련 단체 및 기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내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간 완도 EXPO벨트에서 '인류의 미래 해조류, 그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전시, 체험, 교육, 국제학술행사 등 비즈니스 박람회로 개최된다.

전남건축사회, 장흥군과 '2016 국제통합의료박람회' 개최관련 협약 체결

- 지난 3월 23일, 장흥군청 군수실에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목)는 지난 3월 26일 전남 장흥군청 군수실에서 장흥군과 '2016년 국제통합의료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는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와 장흥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박람회 기간중 홍보, 관람, 행사 등의 체험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료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메카, 가재 장흥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일원에서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된다.

전북 군산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참여 건축사 모집

- 최종 선정인원 10인 제안서접수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시가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주거재생 지원과 근대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 건축사 풀(pool) 구성을 위한 건축사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리모델링 보조사업 참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전체적인 경관과 어울리는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 추진됐다. 공모과제는 군산시 중앙로1가 10-26, 10-27번지의 월명

우수저류조 인근의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설계와 부지내 건물 신축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각 1점씩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공모과제 대상 건축물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원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상 부지 주변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로운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건축사 풀이 선정된다. 이번 공모는 질의서 접수와 화신, 제안서 접수를 거쳐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인원은 10명 정도이고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내의 근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원형적 가치를 존중한 수선, 증·개축에 대해 원형성 회복을 위한 철거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 및 구조체 개보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 수선,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의 50%에 대해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익산시, 한옥 지원 주민상담실 운영

- 익산지역 건축사가 직접 주 1회 추가적인 상담 진행

전라북도 익산시가 한옥 지원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4월부터 한옥 지원 주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처음 시행된 한옥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자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옥 지원 주민상담실을 운영한다. 한옥 지원 주민상담실은 주민의 방문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사업 대상지인 고도 지정지구 내(금마면 미륵사지로1길 33, 금마타워 2층)에 마련됐다.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원 절차와 행정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 건축사가 주1회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한옥 지원 사업은 고도 지정지구 내 한옥을 건립하는 경우 최대 1억원,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문화재청 국고보조 사업이다. 정부의 한옥 지원 사업 중 최고 금액이 지원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세움터 마처리 대상용) 시행

- 오는 4월 4일부터... 해당 주소 http://kors.energy.or.kr 접속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세움터 마처리 대상용) 시행

온라인검토시스템 신청/신청서 접수

온라인검토시스템 이용절차

1.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 2.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요청 →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 (검토요청) → 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검토요청) →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접속인증

공저 및 참고자료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세움터를 통해 처리가 불가한 자체 허가권자(국토부, 국방부, 문화부, 경제청 등) 관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 업무는 해당주소 http://kors.energy.or.kr로 접속하면 된다.

건축사회 관련 4월·5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법/령/정/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11	12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14	15 제31대 시·도 건축사회장협의회 정기회의 -오전 11시 30분 전주봉남관광호텔	16 광주·전남·전북 건축사총구교류전 -광양
17	18 광주건축사회 제4회 이사회의 -오전 10시 회관 소회의실	19	20 광주건축사회 역사편찬위원회 -오전 10시 회관 소회의실	21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임시총회 -오후 2시 회관 대회의실	22	23
24	25	26 광주건축사 실무교육 -오후 2시~6시 회관 대회의실	27	28	29 대한건축사회회장 기 건축사총구대회 -오전 11시 30분 부산기장월드컵 빌리지(1)	30 대한건축사회회장 기 건축사총구대회 -오전 11시 30분 부산기장월드컵 빌리지(2)
1	2 대한건축사회협회 전국지도자대회 -대전 KT 인제개발원	3	4	5	6	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16-03-29 ~ 2016-04-18)

- ◇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령 전면개정('15.12.29.)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법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안 제20 ~ 제33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자」 → 「공공주택사업자」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나. 공공주택법 개정시, 택촉법 일부내용을 이관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관련 사항 반영(안 제6조, 제22조의 5~9, 제23조의 2~6, 제23조~24조)
다. 공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지역용 주택 건축 허용(안 제34조의 제2항)
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허용 및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에 임차료 비율 추가(제33조제4항제3호, 제5항제 6호, 별표6)
마.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택지 공급시 공급가격기준 신설(별표 2)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4호, 2016.3.29,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 확대(제22조제호·제3호 및 별표 1 제호·제10호) 대양에너지사외에 다른 분산형 전원설비도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나 공연 외에 영화상영 또는 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가설공작물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함.
-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점용·설치 허가 대상 확대(제22조제호·제3호 및 별표 1 제호·제10호)
태양에너지사외에 다른 분산형 전원설비도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나 공연 외에 영화상영 또는 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가설공작물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함.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 대상 공원 범위의 확대(별표 1 제11호)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는 공원을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세분된 공원인 도시자연공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함.
다. 취락지구 내 신축 가능한 토지 범위의 확대(별표 2 제6호(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되기 전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이 있는 토지를 추가함.

주택법(시행일 2016. 03. 2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각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하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보다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전북 4·5월 지역축제 안내

- ▶ 04. 01 (금) ~ 04. 30 (토)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2016_전남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 ▶ 04. 16 (토) ~ 05. 08 (일) 고택 청보리밭축제 2016_고창 청보리밭축제 2016
- ▶ 04. 20 (수) ~ 06. 25 (토) 광주 호남예술제 2016_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일원
- ▶ 04. 29 (금) ~ 05. 01 (일) 군산 공당보리축제 2016_전북 군산시 미성동주민센터 앞 보리밭
- ▶ 05. 03 (화) ~ 05. 08 (일) 담양대나무축제 2016_전남 담양 죽녹원, 관방재림 일원
- ▶ 05. 04 (수) ~ 05. 08 (일) 보성다향대축제 2016_전남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차밭 일원
- ▶ 05. 05 (목) ~ 05. 08 (일) 전주 한지문화축제 2016_전북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 ▶ 05. 20 (금) ~ 05. 29 (일) 곡성 세계장미축제 2016_전남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정미공원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강철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코
광주 서구 운천로 153 (쌍촌동)3층
- 김광천 건축사 / 라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침당과기로208번길 17-13 307호
- *전입
-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광주 서구 품금로61, 더블유빌딩 2층
- *폐업
- 임대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환경
- *변경(소재지)
-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광주 서구 품암중앙로 91번길 4-41, 2층(품암동)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광주 서구 품암중앙로 91번길 4-41, 2층(품암동)
- 양동윤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광주 서구 품암중앙로 91번길 4-41, 2층(품암동)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광주 서구 품암중앙로 91번길 4-41, 2층(품암동)
- 박형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
광주 서구 칠성로 43번길 5, 3층(쌍촌동)
- 김성연 건축사 / 일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품암순환로 128번길 63, 2층(품암동)
- 김삼현 건축사 / 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품암순환로 128번길 63, 2층(품암동)
- 김승모 건축사 / 예건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중가로 64-1, 1층
- *변경(상호)
- 유준호 건축사 / (주)포스트 건축사사무소
- 김진우 건축사 / 바오 건축사사무소
- *부고
- 박형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
부친상 01월 18일 (월)
- 김영전 건축사 / 아톰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01월 29일 (금)

전북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조용섭 건축사 / 조용섭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55(중화산동2가)
- 김명진 건축사 / 열린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효자동2가, 602호)
- 김윤미 건축사 / 혜운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행2길 11(삼천동1가)
- 김정희 건축사 / 단영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로 62(서신동)
- 오준철 건축사 / 광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로 62(서신동)
- 최명희 건축사 / 라움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181(낙평리)
- *변경(소재지)
- 김규선 건축사 / 토담 건축사사무소
전북 김제시 건선택2길 100(검산동)
- 오양관 건축사 / 우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45-4, 2층(다가동4가)
- *변경(소재지, 상호)
- 권환주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22(서신동)
- *결혼
- 서영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진건축
장남결혼 - 03월 12일 (토)
- 김중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칸
본인결혼 - 04월 16일 (토)
- *부고
- 방성식 건축사 / 탐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03월 12일 (토)
- 오주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감
부친상 - 03월 26일 (토)
- *기타
- 조상민 건축사 / 상민 건축사사무소
부친 고회연 - 04월 02일 (토)

전남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김하정 건축사 / 포인트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장평로5(2층)
- 양연경 건축사 / 위드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로면 상성길 149-8(2층)
- 전철호 건축사 / (주)좋은사람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5, 2층
- *결혼
- 김태주 건축사 / 대진 건축사사무소
장남결혼 - 03월 19일 (토)
- *부고
- 박용목 건축사 / 다산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03월 02일 (수)
- 한갑수 건축사 / 한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03월 31일 (목)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연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초대편집인 박용목
편집인 서재형
부편집인 정명환, 박종호, 양우현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소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이종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우 T.062)385-9395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꽃피는 봄이면
건축문화에도 봄은 오는가?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700,000원
- 하단광고:350,000원
- 하단1/2광고:200,000원
- 구독료: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1만원부터
- 후원방식:신협 131-009-471898(예금주:광주건축사회)
- 박동준 건축사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주)현진이앤씨 350,000원
-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여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
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kira@empal.com

- 1.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김정운 독자
경기도 김포시

‘환상특급’ 요즘 드라마를 보며

요즘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KBS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며 많은 여성들에게 군인에 대한 경외로움을 심어준 드라마 작가와 PD 그리고 송준기를 비롯한 주인공들에게 예비군 훈련 만기를 얼마남기지 않은 한 남성으로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송 속의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묘사는 태양의 후예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드라마의 탄생이라고 한다.

물론 드라마 속의 직업군이 군인으로만 한정되어 관심을 갖고 시청한 것은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서 묘한 동질감이 반영되는 듯 싶다.

이 드라마에 앞서 군인에 대한 직업군을 잘 나타냈던 MBC ‘진짜사나이’라는 예능프로그램인데,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직접 군인이 되고, 그 속에서 군인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군인들은 나이가 적든 많은 ‘군인아저씨’라는 일관된 명칭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군인오빠’로의 인식으로 돌려 준게 ‘태양의 후예’이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며 너무 과한 설정에 약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몇몇 장면도 있었다.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는 부하장교의 모습과 의도가 뒤틀 안뒤틀 군인이 민간인에게 욕설하는 장면 등 스토리상이러지만 현실과 완벽히 동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장면들로 대한민국 군인들의 어깨에 더 힘이 들어 가게 했다.

재미를 위해 허구가 가미된 드라마니까 이해는 한다지만 너무한 것은 너무한 것이다.

현대극을 넘어 SBS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보면 역사에도 없는 허구성을 가진 인물들을 등장시키며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인물에 대해 혼돈시켰고, 특히나 현대에 와서도 극과 극의 평가로 나누는 조선 태종 ‘이방원’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드라마의 단편을 보여주었다.

어느 때 부터인가 허구가 진실이 되어버리게 현실이 되었다.

역사는 돌고돈다. 우리는 1979년 12월과 1980년 5월을 기억한다. 약 600년전 조선의 이방원이 권력욕에 미쳐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불과 몇 십 년전, 전모 대통령이 행했던 모습들과 겹쳐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몇 대의 후손이 지나 그 전모 대통령이 드라마속 이방원과 같이 현시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의 손에 희생된 수많은 자들의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러니하거든 전 모 대통령도 군인출신이다. 현실에서 군인은 태양의 후예 유사진 대위처럼 명령에 불복종하면 절대 안된다. 유사진 대위가 사는 드라마속 군인은 ‘노인과 아이, 그리고 미인을 보호해야하는 직업’임을 강조하지만에 현실에서 군인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를 뒤집는 직업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동떨어진 드라마를 되도록 보지 않을 셈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태양의 후예는 본방사수할 요량이다. 미인 송혜교 씨의 팬으로서 말이다.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나그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가슴 설레는 사람도 없고
푸른 하늘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이

오늘 하루가 무사하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는 내일은 오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세상 속을
눈길 한번도 주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다

지구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언제나 그 자리인 것은
참으로 평안한 일이다

가슴속에 쌓인 무게를 털어내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체중계에 오르는 설레임처럼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기보다는
그냥 담아두고 싶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책 소개



진창윤 화가
전라북도 전주시

내 마음속의 딱지 - <나쁜 어린이 표/황선미/웅진닷컴, 1999년>



말 안 듣는 아이 어떻게 할까?
욕할 수도, 때릴 수도 없다. 그래서 ‘나쁜 어린이 표’ 한 장을 벌로 줬다. 착한 아이 되라고... 그런데 주인공 건우는 억울하다.
“나는 여태껏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나쁜 어린이 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어린이 표’ 받고, 반성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할 텐데. 주인공 건우는 자꾸만 ‘나쁜 어린이 표’가 많아진다. 공부도 싫고, 친구들에게 나쁜 아이로 보이는 것도 싫고, 선생님은 더더욱 싫다. 이 일을 어떻게?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혹, 누군가에게 ‘딱지’ 붙이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는 내 머릿속에서 변명도 한 번 못 하고 딱지에 눌러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한다. 동화의 힘이다. 그리고 보니 내 마음속에 다양한 종류의 딱지가 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쉽게 붙이며 살아왔다. 만난 지 단 몇 초 만에 붙인 적도 있다.
넌! 믿을 만해, 넌! 못 믿겠어, 넌! 적당히 거리 두고... 비가 내려도, 태풍이 불어도 착 달라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 내 마음속의 딱지들...
그것이 가족과 이웃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줄 잘 알면서도...

그래, 내 마음속 주머니에 가득 찬 딱지를 버리자. 첫 대면부터 저 사람 어떻게 구나! 딱, 붙여 놓고 판단하는 그 버릇, 이쯤 해서 그만두자. 주인공 건우에게 ‘나쁜 선생님 표’ 받고 나서야 정신 차린 선생님처럼 되지 말자.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황선미 작가의 또 다른 책, 1999년 웅진에서 출판했다. 착한 이야기만 동화인 줄 아는 나의 고정관념에 금이 가도록 돌맹이를 던진다.
사는 것이 바빠서 책 읽기 힘든 세상이다. 하는 이때 쉽게 읽히고 감동까지 주는 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딱, 그런 책이다. 정말 뻔한 데, 정말 뻔하지 않게 쓴, 단숨에 읽어 버릴 수밖에 없는 - ‘나쁜 어린이 표’ 주던 선생님이 반성하고 아이와 화해하는 이야기 -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동화책이다.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도 꼭 읽어야 할 책, 이미 읽은 엄마들도 다시 읽어야 할 책.
이참에 혹시나 내가 누구에게 붙인 딱지 있거든랑 떼어버리고, 또 혹시 누가 내 몸에 붙인 딱지 있거든랑 화끈하게 떼어버리고, 한판 세상, 신명나게 어우렁더우렁 영글어져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 1/2 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아 래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실무교육)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4월	26일(화) 14:00~16:00	전문	건축사가 알아야할 현장안전관리	송효근 팀장 (안전보건공단)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26일(화) 16:00~18:00	전문	성공하는 리더의 스피치	양국진 원장 (양국진 스피치)		2시간	30,000원
5월	31일(화) 14:00~16:00	전문	건축·도시정책 및 실무의 이해	안용훈 국장 (광주광역시)		2시간	30,000원
	31일(화) 16:00~18:00	전문	알면 힘이 되는 세무상식	이철웅 계장 (광주지방국세청)		2시간	30,000원
6월	28일(화) 14:00~18:00	전문	건축물 구조설계 및 응용프로그램	이강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4시간	60,000원
7월	26일(화) 14:00~16:00	전문	지식재산의 이해	변종진 변리사 (변종진 특허법률)		2시간	30,000원
	26일(화) 16:00~18:00	전문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고성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2시간	30,000원
10월 (예정)	미 정	윤리	건축사의 역할과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	최혜영 교수 (전남대 사학과)		미정	1시간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4) 출석인정

-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출석체크

-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6) 수강신청 절차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 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교육 강사진 (교육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효근 팀장 (안전보건공단)	양국진 원장 (양국진 스피치)	안용훈 국장 (광주광역시)	이철웅 계장 (광주지방국세청)	이강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변종진 변리사 (변종진 특허법률)	고성석 교수 (전남대 건축학부)	최혜영 교수 (전남대 사학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KIRA Gwangju A Chap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